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이땅에 오신다면 소외되고 삶에 부대끼는 어려운 곳을 찾아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나누는 보시행은 육바라밀중 첫번째로 불자들이 필히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기에 소개하는 네곳뿐 아니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곳을 찾아나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합시다. 물질적인 보시도 소중하지만 부처님가르침이 가득 들어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법공양 한다면 더욱 좋은 봉축선물이 될 것입니다. 1000원의 적은 돈으로도 희망과 행복,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부처님 여기도 와 주세요

통일안국사

고아 25명 보금자리 영어·컴퓨터 과외 걱정

의정부시 호원동 223번지. 2층짜리 조립식 가건물로 이뤄진 조계종 통일안국사. 2층 법당과 1층 27평 공간에는 비구인 주지 지산(智山)스님이 20개월된 아이부터 초·중·고생 25명을 돌보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 아빠스님의 팔과 다리에 매달리려고 수시로 울고 보챈다.

아이들의 장난 받아주고 숙제점검, 잠자리를 보고 나면 11시가 넘어야 취침이 가능하다. 아침에도 4시 예불을 마치고 자원봉사할머니(76세)와 식사준비하고 도시락 싸서 학교보내고 집안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면 오전은 잠깐이다. 스님은 10년동안 버티게 해준 살림밑천인 1천평에 심은 3천그루의 나무묘목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는 일로 오후를 보낸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나를 보고 웃을때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천진난만한 부처님들에게 배우고 살지요"

지산스님은 우연히 부모가 이혼하여 돌지난 갓난아이를 맡게된 것이 계기가 돼 90년부터 10년째 오갈데 없는 아이 25명을 기르는 아버지가 됐다. 그린벨트지역 남의땅을 임대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스님 걱정은 다른데 있다.

이곳 아이들도 영어, 컴퓨터, 피아노등을 배우고 싶어하지만 엄두를 낼수 없기 때문이다. 0351) 876-2235.

◇따뜻한 오후 지산스님과 아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제일은행 641-20-383234 정경택.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진주 성양원

결핵환자 20명 수용 법당·요사채 수리 '꿈'

진주에서 30여분의 거리인 명석면, 마을에서 외떨어진 산중턱에 자리한 성양원(주지 정혜)은 불교계에서는 하나뿐인 무의탁결핵환자 무료요양원이다.

처음 성양원은 결핵환자였던 원정 스님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네 사람을 모아 시작했으나 몇 개월후 입적하자 공주결핵병원 법당에 있던 정혜스님이 맡게 됐다. 그 이후 마산, 공주 결핵병원의 무의탁 환자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 이제 식구가 20여명으로 늘어났다. 10년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2명을 비롯 30대에서 70대의 결핵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가빠오는 숨을 가다듬으며 하루 세 차례 예불을 빠짐없이 드리며 차잎 따기등의 일과를 보내고 있다.

폐질환의 특성상 완전한 회복이 힘들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드물다. 성양원을 떠나는 경우는 죽음이 유일할 정도. 작년에 세상을 떠난 결핵환자 2명을 비롯 정혜스님과 성양원 식구 모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12사람의 눈이 되었고, 시신 4구를 영남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환자를 돌보다 세 번이나 쓰러져 결국 자신의 한쪽 폐를 떼어낸 정혜스님은 금방 쓰러져 갈 듯이 보이는 법당을 바라보며 "어렵게 마련한 법당과 요사채를 수리하고, 식구들이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될텐데…"라고 말문을 흐렸다. 0591)44-2181

◇성양원 식구들이 연꽃을 만들고 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소녀가장 지현이네

삼남매 근근이 생활 동생들 등록금 걱정

서울 성북구 길음1동 길음시장 뒷편 단칸방에는 정지현(협성대 사회복지1), 소현(동구여상2), 지훈(7세) 삼남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살고 있다.

3년전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이들을 남겨둔 채 어머니조차 소식을 끊었다. 등회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어린나이에 두동생을 보살피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결코 쉽지 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현이는 올해 수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부(야간)에 어렵사리 입학했다. 부모없는 아이들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지현이에게 동회와 학교에서 1학기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지현이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다음달에 동생 소현이의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2학기 등록금 마련도 막막하다. 또 내년에는 막내인 지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지하철 가판대 신문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현이는 요즘 또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힘들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02)919-5375

◇소녀가장 지현이네는 단칸방이지만 꿋꿋이 삶을 개척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북한 경수로 연꽃회

북녘땅서 매주 법회 법사·교재없어 어려움

지난 1년사이 분단된 남과 북은 금강산유람선이 으고갈 정도로 발전했지만 북녘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멀기만 하다.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꽃회(회장 김경철). 회사측에서 마련해 준 10평짜리 콘테이너 법당에서 석굴암 본존불 사진을 걸어 놓고 17명의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끌어줄 지도자도, 마땅한 불교자료도 없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연꽃회는 올해도 북녘땅에 부처님 오신 큰 뜻을 기리는 연등을 밝힌다. 이미 남한에서 연꽃잎과 줄전구 구입해 틈틈이 연등 100개를 만들어 법당 안팎을 장엄했다.

연꽃회는 22일 오전10시 봉축 법회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는 17명의 회원이 콘테이너법당에서 정군, 시공단 사무실, 법당을 돌며 제등행렬을 할 계획이다. 연꽃회 김경철회장은 "최근 공사현장에 새로운 인력이 새로 투입되면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당에 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들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자체적으로 불자회를 운영중인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 연꽃회 회원들이 법당에 모였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

후원자 명단

간종홍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
북복지관 강성묵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희 강종남
경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공광근 구진모 구림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행
권 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진
권옥숙 권옥순 권은경 권진순 권치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상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은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두영 김둘남
김복인 김명덕 김명옥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칠 김병훈 김복남 김봉은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김승재 김승자 김식자 김신영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옥련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준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화 김은성 김은중 김은한 김은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선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창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주곤 김준만 김준모 김준영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림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 헌 김헌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효
김호영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환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남하지 남화자 노민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덕문화 명형관 도옥희 도재관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린 류정남 류조향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방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민하식 박강숙 박경남 박경려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광용 박광호 박구숙 박금숙
박남순 박내순 박명의 박무순 박미정 박봉주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순덕 박순득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자 박영우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주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박정화 박재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형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방순학 배경숙 배등금 배병진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실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백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본원익명 봉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
원 사당5동법회 상미숙 서경자 서귀연 서말자 서말희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용 서옥경 서울은행 서은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희선 서충우 서형관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묘경
성민자 성재영 성린제 성효승 소진임 손광자 손금화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인화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복희 송성의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애 신순희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은진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영 심단희 심묘희 심보희 심성학 심원희 심일회
심춘자 심향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양방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점순 엄남주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희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헌승 오현자 오형만
오형희 오희숙 용신구법법회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지원 원정숙 유강수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택 유재훈 유정연 유정용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희 윤병창 윤병혜 윤상분
윤석범 윤 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용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남심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규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혜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애
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승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덕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서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운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판순 이필순 이한희 이향미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
신행회 임경희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재순 임종미 임재임 임춘심
임혜순 임형대 임흥만 임희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옥
장점 장정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혜기 전갑임
전계연 전병임 전복순 전상우 전순남 전순자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호
전정순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이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남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은옥 정은옥
정은채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숙 정필수
정필순 정하선 정혜정 정혜택 정현동 정흔채 조경자
조귀지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우 조악식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완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인자 조정현
조혜숙 조혜연 주우순 주인공 지로봉사모임 지순임
지유미 지창인 진경수 진영숙 진영화 진옥례 진묵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수항 차용옥
차점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명희 최범순 최병연 최복녀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풍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운 최정희 최주원 최행선 최형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타행남부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남 하순임 하홍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지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현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명덕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의숙 허재숭 허정남 허종환 허찬웅 허학연 허희숙
현수천 현원스님 현주원 혜원당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순아 홍영준 홍영호 홍인자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법보시 동참방법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 교민시설을 대상으로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대 상 처: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제일은행 100-20-560799
서울은행 15501-226911 농 협 053-01-236053
뱅크라인 50-01-124050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없이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 의 처: (02)737-8881 · 722-4162

◇1972년 남산에서 열린 봉축행사는 세계평화기원대제로 열렸다.(사진제공=봉축위원회)

되돌아본 초파일 봉축 100년

해방전 국민의 명절 해방후 교계 행사로

1900년대 마지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근세 100년동안 불교최대명절 부처님오신날을 총 결산한다. 그때 그시점 부처님오신날 표정을 돌이보며 2천년대 부처님오신날의 좌표로 삼는다. 〈편집자 주〉

해방전

▲1914년-해인사 불탄절 기념으로 2만연등회 개설. ▲1921년-석가탄신일을 명절로 기념함은 물론 관등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렀다. 국상이후 3년 만에 열린 사월초파일 행사. ▲1923년-조선불교대회에서 석존강탄축하식 거행, 활동사진 영사. ▲1925년-각황사 석탄일 기념식에서 석가여래 사리배관식 봉행. ▲1927년-불교중앙교무원 법요식 거행. 소속단체 회원이 총출동해 선전지 3만매 배포. 각황사에서 관불회 관등의식 등 봉행. ▲1932년-석존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및 경성동맹이 주최하는 기념강연 및 '아란과 마등가' 등 연극 공연. ▲1933년-불교교무원에서 불교총동맹 주최로 5월1일부터 2일 양일에 거쳐 기념식 거행.▲1934년-경성제국대학 불교청년회 불탄2500년(구 불기) 기념 조선불교 전적전람회 개최. ▲1936년-조선불교중앙교무원 주최 강연 및 연극 공연. 나남 관북불교회는 명성학원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극대회 개최. ▲1938년-석존강탄기념 봉축회 성탄기념식 거행. 총독부의 방침으로 양력 4월8일에 개최키로 함. ▲1939년-불타제전 봉행회 주최로 불타탄생 봉축식 거행. 저녁에는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방전도(路傍傳導)함. ▲1940년-경성부청앞 파고다 공원 및 경정(京町) 광장에 만든 석존당에 모여 배례를 드림. 부민관에서 경성불교아동연맹의 아동대회 등 개최.

해방후

1947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요식을 비롯해 세존강탄경축회, 한글경전전시회, 강연회, 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행사를 개최했으나 국민의 명절에서 불교계의 명절로 많이 축소된 분위기였다.

1955년에는 대처측 총무원과 비구측 선학원이 분리되어 봉축 법요식을 따로 봉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총무원 측은 창경원에서 석가세존 탄일을 축복했고, 선학원은 조계사에서 불전 예식을 거행했다. 또 조계사에서 종로3가 을지로3가 시청 앞을 지나 안국동을 돌아 조계사로 가는 제등행렬을 벌였다.

1957년에는 조계사에서 관불식을 거행하고 각 사찰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1958년에는 조계사에서 관욕식 및 봉불식을 거행했다. 오후8시부터는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고 10대의 트럭을 동원한 제등행렬을 개최해 서울의 밤거리를 색색의 연등으로 화려하게 수놓았다.

1959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조계사에서 법요식을 갖고 찬불가 승무 등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종로 을지로 광화문에서 봉축 가두방송과 더불어 코끼리 등 장엄물이 등장하여 개최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1960년은 4.19의거로 인해 관등행렬이 허가가 나지 않는 아픔을 겪었다.

1962년에 발족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듬해

1963년 총무원이 주최하는 봉축 법요식을 조계사에서 열었다.

1966년에는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행사로 주한외국인 26명이 참석한 법회를 조계사에서 가져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인 27일에는 봉축 법요식을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봉축문을 낭독해 화제가 됐다. 조계사에서 제등행진을 하고 종묘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전국 그네대회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967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도량석을 돌 듯 새벽에 탑골공원 조계사 일대를 돌며 가두독경행사를 연출했다.

1968년에는 총무원이 4월초파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통일을 했다.

1969년 2월에는 불교 13개 종파가 대표자 회의를 열어 4·8 공휴제정운동을 결의했다.

1972년에는 서울시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4·8 봉축탑을 건립 첫 선을 보였다. 1974년 제등행렬은 동국대에서 시작해 조계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때마침 남한에 머문 북한 사절단이 볼 수 있었다. 1975년 1월14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됐다. 공휴일이 된 첫 부처님오신날인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예술대전이 11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개최됐다. 1976년 5월1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제등행렬은 6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강연회 개최 이후 열렸다. 1979년 분규를 겪던 조계종이 조계사 개운사 총무원이 각각 주최해 별도의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서울을 위주로 열리던 제등행렬이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

1980년 5월21일은 불탄일 범불교연합 봉축행사가 조계종 분규로 취소됐다.

1981년 5월11일 부처님오신날에는 통금을 해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재소자 5백87명이 특별 가석방됐다.

1982년 범종단 차원의 제등행진을 처음으로 벌였다. 18개 종단 20만 불자가 참여하는 제등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1914 해인사 2만연등 개설
1968 부처님오신날 명칭통일
1975 초파일 공휴일 제정
1982 범종단 첫 제등행진

1984년 18개 종단 대표가 참가해 '나라와 국가원수를 위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 1989년 부처님오신날은 봉축 제등행렬이 무장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사에서 경찰 폭력 만행 규탄 및 불교자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91년 여의도에서 시작된 제등행진 때 비구니스님과 어린이들의 행렬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20일 최루탄 발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김수환 추기경이 '용서와 사랑이 곧 자비'라는 봉축 메시지를 방송 화제가 됐다. 24일에는 제등행렬 최루탄 발포에 대한 시경국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25일에는 불교탄압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조계사에서 열려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1993년 부처님오신날부터는 문화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졌다. '화엄경 선재동자' '탈속' '사모곡' 등 불교연극을 비롯 전시 강연 국악공연 등이 다채로웠다. 또 여의도에서 열리던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져서 개최됐다. 1995년 다시 여의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및 대법회를 봉행했다. 5월5일 조계사에서 첫 외국인 노동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봉원사는 법요식 후 고려시대 전통시장인 난장을 재현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1996년 제등행진이 다시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졌고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종로통 곳곳에서 거리 연등축제를 시민축제로 열었다.

〈자료:한국현대불교사일지·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